

혈소판 공여자의 불안과 불편감

-첫 공여자를 중심으로-

홍 숙 임(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성분헌혈실)
최 소 은·박 호 란(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영문초록
IV. 논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혈소판 수혈은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소판 기능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있어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필수적이다. 혈소판 성분채집술(plateletpheresis)을 이용하여 한명의 공여자로부터 대량의 혈소판을 얻는 단일 공여 혈소판(Single Donor Platelets)은 혈소판 수혈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조직 적합 항원에 대한 숙주의 감각 및 항혈소판 항체 형성의 기회를 줄이기 때문에(김의경, 1986), 최근에 혈액종양질환 환자들을 위한 골수이식 및 고용량 항암요법시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권오현과 김현옥, 1993). 그러나 혈소판 헌혈 인구의 증가는 낮은 실정인데 이는 혈소판 성분 헌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헌혈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공포로 헌혈을 망설이기 때문이다(이상동, 1994; 김사각, 1997). 처음 혈소판을 공여하는 자(이하 첫 공여자)는 경험이 있는 공여자보다 혈소판 헌혈이 생소하고 정맥천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더 불안해한다(Trouern-Trend et al, 1999). Scott(1995)은 헌혈시 공여자의 부작용을 연구한 결과에서 첫 공여자가 경험이 있는 공여자보다 부작용을 3배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헌혈과정에 대한 두려움, 헌혈시 신체적 불편감이 헌혈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헌혈시 불편감을 느꼈던 사람은 다시 헌혈할 의사가 낮다고 한다(Thomson et al., 1998).

혈소판 헌혈 인구를 증대하고 헌혈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첫 공여자의 혈소판 공여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감 정도와 그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모색하고 혈소판 헌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재 헌혈을 유도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의 연구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불안을 측정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혈소판 공여자를 대상으로 특히 처음 혈소판 공여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감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혈소판 성분헌혈을 처음하는 공여자를 대상으로 혈소판 공여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혈소판 성분 헌혈을 처음하는 공여자를 대상으로 혈소판 공여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감 정도를 알아보며 불안과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혈소판 공여자를 위한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헌혈전 경험하는 불안 정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 2) 대상자의 혈소판 공여시 지각하는 불편감 정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 3) 혈소판 공여자의 헌혈전 경험하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 4) 혈소판 공여자의 혈소판 공여시 지각하는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1) 혈소판 성분헌혈

혈액 성분 분리기를 이용하여 공여자의 혈액을 혈장, 혈소판 및 백혈구로 분리한 후 혈소판 성분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다시 공여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 방법으로 1회에 1-2시간이 소요된다.

2) 불 안

심리적인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나 역할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막연한 불쾌감을 말한다.

즉 주관적이며 긴장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이며, 객관적 위협과는 상관없이 개체가 어떠한 환경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했을 때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로써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불안의 강도가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혈시 경험하는 주관적 감정으로서 Spielberger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로 측정된 값을 말한다.

3) 불편감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

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긴장되는 거북한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혈소판 성분채집술과 관련되어 혈소판공여자가 지각하는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인 불편감을 말한다(김상돌, 1997).

II. 연구 방법

1. 대 상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C대학병원내 성분헌혈실을 방문하여 혈소판을 처음으로 공여하는 309명이었다.

2. 방 법

1) 도 구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 8문항, 불안 측정 20문항, 혈소판 공여시 지각하는 불편감에 관한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불안측정은 Spielberger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변안하여 표준화시킨 불안 척도를 이용하였다.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형의 4점 척도로 각각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의 범위를 지니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0.84이었다.

불편감 측정은 김상돌(1997)이 개발한 혈소판 채집시 지각하는 불편감 59문항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제외하고 비슷한 내용을 합쳐서 50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4단계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최저 50점에서 최고 20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불편감 측정도구는 4개 요인 즉 심리적 요인(19문항), 환경적 요인(9문항), 신체적 요인(18문항), 시간 관련 요인(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0.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0.96$ 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4월 28일부터 9월 10일 까지이며 성분헌혈실을 방문한 대상자에게 혈소판 헌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헌혈에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혈액 검사를 하였다. 혈액검사후 3개월이내에 환자가 혈소판을 필요로 할 때 대상자가 혈소판 공여를 하기 위해 성분헌혈실을 방문하였을 때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혈소판 공여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 특성과 불안 문항을 작성하고 공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할 때 불편감 문항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질문지 작성시간은 15-20분이었고 회수율은 100%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과 불편감 점수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ANOVA후 집단간의 차이는 Scheffé test를 하였다. 불안과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1-30세가 70.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직업별 분포는 군인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이 18.3%였다. 학력은 대재학이 52.8%, 고졸이하가 22.0%였다.

일반헌혈경험은 경험이 있는 군이 83.5%로 대부분이었으며, 헌혈전 식사상태는 식사를 한 군이 76.3%였다.

헌혈동기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가 94.8%로 대부분이었으며, 헌혈전 신체상태는 '양호하다'가 78.6%,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가 21.4%였다(표 1)

2. 불 안

1) 대상자의 불안 정도

대상자의 불안 총점수는 80점 만점 중 최저 20점에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9)

일반적 특성	실 수	백분율(%)
성별		
남	305	98.7
여	4	1.3
연령(세)		
≤ 20	70	22.7
21-30	217	70.2
≥ 31	22	7.1
직업		
중고생	14	4.6
군인	173	56.5
대학생	46	15.0
회사원	56	18.3
기타	17	5.6
학력		
중고재학	17	5.9
고졸이하	63	22.0
대재학	151	52.8
대졸이상	55	19.2
일반헌혈경험		
유	258	83.5
무	51	16.5
헌혈전 식사상태		
유	235	76.3
무	73	23.7
헌혈동기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293	94.8
주위의 강요나 부탁으로, 거절하기 곤란하여	2	0.6
기타	14	4.5
헌혈전 신체상태		
양호하다	243	78.6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	66	21.4

서 최고 51점으로 평균 32±6.52점이었다. 대상자의 불안 점수 평균을 50점 기준으로 하여 표준편차 10점인 규준점수 T로 전척한 결과 최저 31점에서 최고 78점의 범위였다.

불안의 총 평균 평점은 4점 만점에 1.60±0.32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직업에 따른 불안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군의 불안의 평균은 1.87점으로 군인군의 1.5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학력에 따른 불안은 중고등학교 재학생군이 평균 1.85점으로 고졸이하군의 1.59점, 대

학교 재학생군의 1.60점, 대졸이상군의 1.6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일반헌혈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없는 군은 평균 1.72점으로 경험이 있는 군의 1.5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05, P=0.00$). 헌혈전 신체상태가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군은 평균 1.74점으로 양호한 군의 1.5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10, P=0.00$).

200점 만점에서 평균 86 ± 22.03 이었으며, 최저 50점에서 최고 147점의 범위였다. 이를 표준점수로 전척한 결과 최저 33점에서 최고 77점의 분포였다.

불편감의 총 평균 평점은 4점 만점에 평균 1.72 ± 0.44 점이었다. 요인별로는 시간 관련 요인 2.14 ± 0.55 점, 환경적 요인 1.80 ± 0.47 점, 신체적 요인 1.73 ± 0.47 점, 심리적 요인 1.60 ± 0.49 점 순이었다.

3. 불편감

1) 대상자의 불편감 정도

대상자의 혈소판 공여시 지각하는 불편감 총점수는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편감

직업에 따른 불편감을 살펴보면 대학생군의 불편감의 평균이 1.86점으로 군인군의 1.6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 일반헌혈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없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N=309)

일반적 특성	상 태 불 안		t or F	P
	실 수	M±SD		
성별				
남	305	1.60 ± 0.32	0.13	0.89
여	4	1.62 ± 0.27		
연령(세)			2.46	0.08
≤ 20	70	1.67 ± 0.34		
21-30	217	1.57 ± 0.30		
≥ 31	22	1.65 ± 0.41		
직업			3.09	0.01
중고생	14	1.87 ± 0.43^a		
군인	173	1.57 ± 0.30^b		
대학생	46	1.64 ± 0.32		
회사원	56	1.61 ± 0.31		
기타	17	1.55 ± 0.38		
학력			3.41	0.01
중고재학	17	1.85 ± 0.39^a		
고졸이하	63	1.59 ± 0.28^b		
대재학	151	1.60 ± 0.31^b		
대졸이상	55	1.60 ± 0.33^b		
일반헌혈경험			3.05	0.00
유	258	1.57 ± 0.31		
무	51	1.72 ± 0.35		
헌혈전 식사상태			1.46	0.14
유	235	1.58 ± 0.32		
무	73	1.65 ± 0.32		
헌혈동기			0.99	0.37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293	1.59 ± 0.32		
주위의 강요나 부탁으로, 거절하기 곤란하여	2	1.90 ± 0.07		
기타	14	1.65 ± 0.34		
헌혈전 신체상태			4.10	0.00
양호하다	243	1.56 ± 0.32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	66	1.74 ± 0.30		

a, b : 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는 군이 평균 1.86점으로 경험이 있는 군의 1.6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42$, $P=0.01$), 현혈전 식사를 하지 않은 군의 불편감 평균은 1.87점으로 식사를 한 군의 1.6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40$, $P=0.00$). 현혈전 신체상태가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인 군은 평균 1.85점으로 양호한 군의 1.6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76$, $P=0.00$).

4. 현혈전 경험하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현혈전 신체상태

와 학력, 일반현혈경험으로, 현혈전 신체상태가 4.62%의 설명력을 지녔으며, 학력이 3.24%, 일반현혈경험이 2.36%로써 총 설명력은 10.22%이었다(표 4).

5. 혈소판 공여시 지각하는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직업과 현혈전 식사상태, 현혈전 신체상태로 직업이 5.03%의 설명력을 지녔으며, 현혈전 식사상태가 2.35%, 현혈전 신체상태가 2.01%로써 총 설명력은 9.39%이었다(표 5).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편감

(N=309)

일반적 특성	불편감		t or F	P
	실 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305	1.72±0.44	1.48	0.13
여	4	2.05±0.23		
연령(세)				
≤ 20	70	1.75±0.42	0.38	0.68
26-30	217	1.71±0.43		
≥ 31	22	1.76±0.54		
직업				
중고생	14	1.93±0.41	4.53	0.00
군인	173	1.63±0.41 ^a		
대학생	46	1.86±0.42 ^b		
회사원	56	1.81±0.44		
기타	17	1.70±0.55		
학력				
중고재학	17	1.91±0.40	1.98	0.11
고졸이하	63	1.67±0.40		
대재학	151	1.71±0.43		
대졸이상	55	1.81±0.47		
일반현혈경험				
유	258	1.69±0.43	2.42	0.01
무	51	1.86±0.45		
현혈전 식사상태				
유	235	1.67±0.43	3.40	0.00
무	73	1.87±0.42		
현혈동기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293	1.72±0.43	0.30	0.73
주위의 강요나 부탁으로,	2	1.74±0.11		
거절하기 곤란하여	2	1.74±0.11		
기타	14	1.81±0.57		
현혈전 신체상태				
양호하다	243	1.68±0.44	2.76	0.00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	66	1.85±0.40		

a, b : 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표 4〉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N=309)

Variables	Partial R	Model R ²	F	P
헌혈전 신체상태	0.0462	0.0462	14.8300	0.0001
학 력	0.0324	0.0786	10.7413	0.0012
일반헌혈경험	0.0236	0.1022	7.9897	0.0050

〈표 5〉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N=309)

Variables	Partial R ²	Model R ²	F	P
직 업	0.0503	0.0503	16.2104	0.0001
헌혈전 식사상태	0.0235	0.0738	7.7263	0.0058
헌혈전 신체상태	0.0201	0.0939	6.7351	0.0099

IV. 논 의

단일 공여 혈소판은 각 병원 자체내에서 혈소판 성분채집술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1997년도 국내 혈소판 성분헌혈 전수는 24,706으로 1996년에 비해 32.4% 증가하였다(권소영, 2000). 그러나 공여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감염성 질환이 많아지고, 헌혈에 대한 불만족, 무관심이 늘어나면서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Scott, 1995).

성분 헌혈에 대해 알게되는 경로가 주로 환자나 보호자의 설명을 통해서이며, 성분 헌혈 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이 공여자가 불안을 느끼는 주요소이고 헌혈시 가장 불편하였다고 호소하였다(정화령 등, 1989; 김광미, 1994).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가 헌혈과정이 두렵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에이즈, 간염 등에 전염될까봐 순으로 이는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권선해, 1995). 헌혈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헌혈 자체를 보람있고 뜻있는 일로 이해하고 안전하고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해소되도록 하며 헌혈시 경험하는 불편감이 낮춰지도록 해야한다(이경효, 1992; Thomson et al., 1998).

특히 혈소판 성분헌혈을 처음하는 공여자는 혈소판 성분헌혈이 낯설고 경험이 부족하여 경험이 있는 다회 공여자보다 불안과 불편감을 더 느끼게 된다. 김사라(1978)는 헌혈 경험이 있는 헌혈자보다 초회 헌혈자의 불안이 높고 이는 미지의 불안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불안은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새로운 상황이나

역할에 직면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첫 공여자가 헌혈 경험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다시 헌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혈소판 성분헌혈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Scott, 1995).

혈소판 성분채집술은 분당 60-80ml의 속도로 채혈하고 주입하게 되므로 혈액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채집과정중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공여자의 부작용은 경미하며 공여자의 5%미만에서 발생하며, 주로 구연산 독성으로 인한 저칼슘혈증, 기슴이 답답함, 불안 등이다(김의경, 1986; Pamphilon, 1995). 미주신경반응은 공여자의 심리적 불안, 긴장으로 인해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다회 공여자보다는 첫 공여자에서 더 높은 빈도로 일어난다(Scott, 1995).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1-30세가 70.2%이고 직업별 분포는 군인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헌혈 연령층이 대부분 10대과 20대에 편중되어 있고(이경효, 1992; 이상동, 1994), 1996년 전체 헌혈에서 학생과 군인이 70.9%였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성분 헌혈도 단체 헌혈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자들의 경우 92.5%가 고등학교나 군복무기간 중 처음 헌혈을 경험하므로(감신 등 1997), 이 시기에 헌혈시 헌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 헌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 헌혈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헌혈 동기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가 94.8%로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일반 헌혈자

의 헌혈 동기는 예치성 동기가 많은데 비해 수혈받을 환자를 미리 정하고 헌혈하는 지정공혈자의 헌혈 동기는 환자를 도우려는 인도주의적인 동기가 많았다는 조계숙(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지정공혈은 헌혈을 하고 싶었던 공혈자에게 헌혈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신체검사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혈시 필요한 환자를 직접 돕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보람을 느끼게 한다.

불안 정도는 중고등학생군이 직업별로 1.87점, 학력별로 1.85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P=0.01$), 일반헌혈경험이 없는 군이 유의하게 높았다($t=3.05$, $P=0.00$). 이는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혈소판 성분헌혈시 불안 감소를 위한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간호중재 전략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반헌혈경험이 없는 첫 공여자의 불안 정도가 높음을 알고 첫 공여자에게는 헌혈시 예상되는 일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헌혈 과정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며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더 능숙한 의료진이 채집하도록 하고 헌혈전 대기 시간을 줄이고 헌혈전에 적절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한다(Kasprisin et al., 1992; Scott, 1995).

혈소판 공여자가 헌혈시 지각하는 불편감은 심리적, 환경적, 신체적 요인 및 시간 관련 요인에 의하여 지각되며, 헌혈에 대한 불안이나 긴장 등의 심리적 요인이 신체적 불편감을 유발하기도 한다(김상돌, 1997; 위재호, 1997).

본 연구에서 요인별 불편감의 평균 점수는 시간 관련 요인이 2.14 ± 0.5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김상돌(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 헌혈과 달리 혈소판 성분 헌혈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간호 중재 방안이 요구된다. 즉 헌혈전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혈액 검사후 결과 통보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편감은 일반 헌혈 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불편감이 높았다($t=2.42$, $P=0.01$). 헌혈전 식사를 하지 않은 군이 식사를 한 군보다 불편감이 높았다($t=3.40$, $P=0.00$). 헌혈전 지각하는 신체상태가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고 응답한 군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군보다 불편감이 높았다

($t=2.76$, $P=0.00$).

헌혈전 경험하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전 신체상태와 일반헌혈경험이므로 헌혈전 문진표 작성시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와 일반헌혈경험이 없는 경우에 특히 관심을 갖고 불안 감소를 위한 간호 중재를 수행해야 하겠다.

혈소판 공여시 지각하는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전 식사상태와 신체상태이므로 헌혈전에 식사를 하도록 시간을 배려하거나, 간단하게 빵과 우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혈소판 성분헌혈에 대한 정보제공시 헌혈전 식사를 한 후 헌혈하도록 교육한다. 또한 공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상태도 양호할 때 헌혈하도록 교육하며, 헌혈시와 후에 공여자가 불편감을 느끼는지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Jenkins, 1993; Thomson et al., 1998).

헌혈 사업은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헌혈을 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기적으로 다시 헌혈을 하게끔 유도되지 않으면 혈액 수급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첫 공여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인식될 때, 다시 다음 헌혈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며, 또한 주위의 친구나, 친지들에게 헌혈을 권유할 것이므로 자연히 헌혈자들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이상동, 1994).

혈소판 성분헌혈시 공여자가 지각하는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혈의 저해 요소나 부작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시켜 공여자들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김윤숙과 조남선, 1997). 혈소판 채집술과 관련되는 불편감을 연구한 김상돌(1997)에 따르면 보통이상의 불편감을 느끼는 공여자가 51.8%로 이를 낮추기 위한 간호 중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헌혈시 예상되는 일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헌혈 과정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앞으로 혈소판 공여자의 불안과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여 보다 편안하게 혈소판 성분헌혈을 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헌혈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1999년 4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C 대학병원 성분 헌혈실에서 혈소판 성분헌혈을 처음하는 30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혈소판 공여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감 정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1-30세, 직업별 분포는 군인이 가장 많았다.
2. 불안점수는 평균 1.60 ± 0.32 점이었으며, 중고등학생군의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헌혈경험이 없는 군이, 헌혈전 신체상태가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 군이 불안이 높았다.
3. 불편감점수는 평균 1.72 ± 0.44 점이었으며, 시간관련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헌혈경험이 없는 군이, 헌혈전 식사를 하지 않은 군이, 헌혈전 신체상태가 '보통이다' 또는 '피곤하다' 군이 불편감이 높았다.
4.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전 신체상태 (4.62%), 학력(3.24%), 일반헌혈경험(2.36%)였다.
5.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5.03%), 헌혈전 식사상태(2.35%), 헌혈전 신체상태(2.01%)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처음 혈소판을 공여하는 대상자에게 헌혈전 신체 상태와 식사상태에 대한 문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혈소판 공여자의 불안과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여 보다 편안하게 혈소판 성분헌혈을 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헌혈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사라 (1977). 헌혈자의 헌혈에 관한 지식과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감신, 김성아, 강윤식, 박기수, 손재희, 예민해, 이경은, 김종규, 송달효 (1997). 대학생들에서의 헌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수혈학회지, 8(2) : 301-312.
 권선해 (1995). 한국인의 헌혈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

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소영 (2000). 대한 적십자사의 혈소판성분헌혈 시행 현황 및 전망. The second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for apheresis, 2-3.
 권오현, 김현옥 (1993). 우리나라의 혈액분반술. Apheresis workshop 초록집, 5-15.
 김광미 (1994). 혈소판 공여자의 헌혈에 관한 지식 태도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사각 (1997). 우리나라 혈액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상돌 (1997). 성분 헌혈자가 혈소판 반출시 지각하는 불편감. 대한간호학회지, 27(3) : 577-586.
 김윤숙, 조남선 (1997). 혈장성분헌혈후 이에 대한 헌혈자의 인식에 관한 조사. 대한수혈학회지, 8(1) : 73-84.
 김의경 (1986). 혈소판 반출시 공여자와 수혜자에서 나타난 임상적 문제.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39(1) : 395-404.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11) : 1220 -1223
 위재호 (1997). 단체헌혈에 참가한 고교생의 혈관미주 신경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수혈학회지, 8(2) : 239-248.
 이경효 (1992). 전국의료기관부설 혈액원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동 (1994). 적십자 사업중 혈액 사업 개선 방안 연구-헌혈인구증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화령, 권오현, 김현옥, 이삼열 (1989). 세 기기에 의한 혈소판 반출법과 공혈자에 미치는 영향 비교. 대한입상병리학회지, 9(1) : 227-232.
 조계숙 (1997). 지정헌혈자와 지정수혈자 가족의 지정 공혈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Jenkins, J. A., & Martlew, V. J. (1993). Quality in blood collection, Transfusion science. 15(3) : 264-266.
 Kasprisin, D. O., Glynin, S. H., Taylor, F., & Miller, K. A. (1992). Moderate and severe

- reactions in blood donors. *Transfusion*, 32(1) : 23-26.
- Pamphilon, D. H. (1995). *Modern transfusion medicine: Donor and therapeutic apheresis procedure*. Bristol : CRC press, 11-55.
- Scott, E. P. (1995). The safety of blood donation-is it what it should be?. *Transfusion*, 35 : 717-718.
- Thomson, R. A., Bethel, J., Lo AY, Ownby, H. E., Nass, C. C., Williams, A. E. (1998). Retention of "safe" blood donors. *Transfusion*, 38 : 359-367.
- Trouern-Trend, J. J., Cable, R. G., Badon, S. J., Newman, B. H., Popovsky, M. A. (1999). A case-controlled multicenter study of vasovagal reactions in blood donors: influence of sex, age, donation status, weight, blood pressure, and pulse. *Transfusion*, 39 : 316-320.

ABSTRACT

The Anxiety and Discomfort of Platelet Donors

Sook-Im Hong(St. Mary Hospital)
So-Eun Choi · Ho-Ran Park(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degree of the anxiety and discomfort experienced by first-time donors in platelet don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309 first-time platelet donors visiting apheresis unit of St. Mary hospital in Seoul.

The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during period of 28 April to 10 September 1999.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ost common group were 21-30 years of age and soldier of job.
2. The mean scores of the platelet donor's anxiety was 1.60 ± 0.32 .
3. The mean scores of platelet donor's discomfort was 1.72 ± 0.44 .
4. The variables influencing anxiety were the physical condition, the level of education and donation experience.
5. The variables influencing discomfort were the job, diet before donation and physical condition.

As the result above, the student group of the first time platelet donor experienced highest anxiety. It is important to assess the physical condition and diet before donation for more comfortable platelet donation. Furthermore, the developments of nursing interventions are required to reduce anxiety and discomfort of platelet donors.